

## 石油時評

# OPEC 神話의 終焉



「石油」 하나를 가지고 氣高萬丈 하던 產油국의 콧대가 꺾이고 있으니 人間萬事 塞翁之馬인가

「OPEC는 結局 崩壞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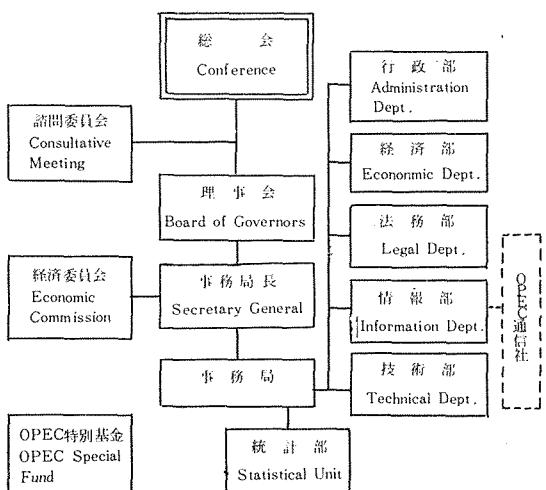
지난해 美国의 メンバー에서 열린 国際 エネルギー經濟学会 (IAEE) 총회에서 알라스카大学의 아론 · 터싱 教授는 「OPEC崩壊論」을 제시해 많은 관심을 모았다. 70年代 石油価格의 폭등은 OPEC에 内在되어 있는 「힘」에 의한 것이 아니라 OPEC가 임의로 결정하는 原油価格을 수동적으로 인정할 수 밖에 없었던 소비자들의 「恐怖」에 의해 이루어진 結果인바, 이러한 恐怖가 이제 끝났으므로 OPEC의 神話는 더 이상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이 그의 論旨였다.

또 그는 앞으로 安定으로 유지 가능한 石油価格은 배럴당 10~18달러라는 놀라운 展望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는 한때 배럴당 40달러에 육박하는 高油価에 시달려온 소비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 확실이 움주린 가슴을 펴게하는 「보라빛 予言」이 아닐 수 없었다. 그 동안 때를 기다리지 않고 치솟기만 해온 原油価格은 인플레이의 主犯으로서 中東사람들이 머리에 두른 하얀 베모자기만 보아도 증오심을 불러 일으키기에 足할 정도로 우리의 마음을 상해 놓았었다.

그런데 「石油」 하나를 가지고 氣高萬丈 하던 產油국의 콧대가 꺾이고 있으니 人間萬事 塞翁之馬인가.

아직 OPEC崩壊를 속단하기는 이르지만, OPEC카르텔이 약화되는 조짐은 확연히 나타나고 있다.

OPEC의 機構



## OPEC 産油国의 原油生産現況

(単位:万 배 売)

	82年3月의 産油量	82年12月의 産油量
알 제 리	65	70
에 콰 도 르	20	20
가 봉	15	15
인 도 네 시 아	130	130
이 란	120	270
이 라 크	120	85
쿠 웨 이 트	80	75
리 비 아	75	180
나 이 지 리 아	130	140
카 타 르	30	33
사우디아라비아	715	525
U A E	100	120
베 네 수 엘 라	150	220
計	1,750	1,883

지난 1월 23일 제네바에서 열렸던 OPEC 긴급石油相會議의 결렬은 OPEC 카르텔機能이 사실상 와해되고 있음을 여실히 反証해 주고 있다.

이번 회의는 OPEC의 基準油価(배럴당 34달러) 유지를 위해 ▲ 產油量을 감축하고 ▲ 基準油와 高質油의 가격차를 조정하는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모임이었다. OPEC의 리더인 사우디아라비아는 自國產油量을 하루 7백만배럴에서 4

백 50만~5백만배럴로 감축할 것을 제의하면서 그 대신 여타會員국의 国別產油쿼터준수, 배럴당 1.5달러인 油質間 가격차의 확대, 이란의 減產등을 요구했다.

그러나 나이지리아, 리비아, 알제리 등 高質油生產国들이 경쟁력 약화를 우려, 油質間 가격차 확대를 반대하고 나선데다가 国別쿼터의 3 배에 가까운 하루 3백 20만배럴을 생산하는 이란(產油쿼터는 1백 20만배럴)이 減產요구를 일축함으로써 결국 회의는 실패로 끝났다.

이로써 작년 아래 줄곧 油価引下压力에 시달려온 OPEC의 基準油価 固守노력을 한계에 부닥쳤음이 드러났다. 지난 73년 배럴당 2달러 41센트의 原油価를 한꺼번에 10달러 95센트까지 引上, 國際原油시세의 목을 죄어온 OPEC는 창설 22년만에 그 위력을 잃게 된 셈이다.

이제 OPEC가 世界石油市場을 지배하던 時代는 끝났다. 그동안 세계적인 石油需要의 감퇴와 非OPEC 產油国의 原油生産増大로 自由世界에서 차지하는 OPEC의 石油供給비중은 점차 축소되고 있다. 自由世界의 석유생산량에서 차지하는 OPEC의 비중은 73년의 64.6%를 고비로 79년 60.8%, 82년(1~8月)에는 45.7%로 급감되고 있다.

## OPEC活動의 時期区分과 國際石油市場

	1960~1970年	1971~1973年	1974~1978年	1979~
時期区分	草創期 (OPEC攻勢의準備)	協定時代 (漸進的改革)	價格卡르텔時代 (獨占的地位의 確立)	價格·生產카르텔時代 (高價格·低生產)
對美 이 저 関係	原油의 價格·生產은 모두 메이저가 決定, 產油 국은 収稅만 담당	原油의 價格利益分配은 協定에 따라 決定	原油의 價格·生產모두 產油국이 決定. 메이저 국은 徵稅人으로 第 二 次 OPEC의 徵稅人으로 第 二 次	產油국直接販売의 拡 大
市場構造	메이저依存 (메이저의 競争的寡占)	OPEC C 攻 勢 P 原 油 市 場 (生 產 中 心) E C OPEC의 双方寡占 勢	资本参加·国有化 石油 危 機 의 急進展	原油市場에서 OPEC 의 供給獨占(製品販 賣, 委託精製等 下流 部門에의 進出시도)
價格構造	公示價格의 固定, 實勢 價格의 下落(1배럴당의 產油國收入維持)	公示價格의 완만한引上 인플레 条項導入(1배럴 当產油國收入, 메이저利 益모두增大)	公示價格廢止, 政府販 賣價格으로(1배럴당 메 이저利益을 圧縮·固定)	新價格決定方式으로
價格水準	1달러原油	2달러原油	10~12달러原油	20달러에서 30달러線으로
需給關係	供給過剩 (買者市場)	均衡에서 逼迫으로 (売者市場)	石油수급완화 (買者市場)	逼迫→완화→완화→ (売者市場)

(1) 備蓄수準이 낮은 경우  
83年自由世界石油需給予測(高需要의 경우)

83年自由世界石油需給予測(低需要의 경우)

(百万b/d)		82			1983			1982			平均		
需供	要給	平均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平均	45.65	45.99	需供	要給	(百万b/d)	
OPEC(NGL)	O P E C	43.22	45.52	47.21	44.74	43.48	47.19	45.65	45.99	O P E C	O P E C(NGL)	45.52	
非OPEC(NGL)	非 O P E C	18.48	21.00	20.71	20.94	21.28	20.98	45.67	46.00	46.44	46.44	43.22	
非OPEC(NGL)	非O P E C	0.87	0.85	0.85	0.85	0.85	0.85	20.26	20.36	20.46	20.46	18.48	
共産圈	共産圈	19.79	20.26	20.36	20.46	20.56	20.41	2.28	2.25	2.25	2.25	0.87	
需給差 (億噸)	需給差 (億噸)	-2.30	-1.35	0.93	2.52	-0.75	0.34	(年末)	(年末)	需給差 (億噸)	需給差 (億噸)	19.79	
備蓄	備蓄	40.33	39.12	39.96	42.28	41.59	41.59	40.33	41.59	備蓄	備蓄	40.33	
剩餘	剩餘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剩餘	剩餘	0.00	
季節	季節	5.00	2.50	4.00	6.00	5.00	5.00	5.00	5.00	季節	季節	5.00	
強制輸送	強制輸送	35.33	36.62	35.96	36.28	36.59	36.59	35.33	36.59	強制輸送	強制輸送	35.33	
比率	比率	(86)	(86)	(88)	(93)	(91)	(91)	(86)	(86)	比率	比率	(86)	

(百万b/d)		82			1983			1982			平均		
需供	要給	平均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平均	45.65	45.99	需供	要給	(百万b/d)	
OPEC(NGL)	O P E C	43.22	45.54	44.74	43.48	47.19	45.65	45.65	45.99	O P E C	O P E C(NGL)	45.52	
非OPEC(NGL)	非 O P E C	18.48	20.68	19.78	20.31	20.67	20.36	45.37	45.37	非O P E C	非O P E C(NGL)	43.22	
非OPEC(NGL)	非O P E C	0.87	0.85	0.85	0.85	0.85	0.85	20.26	20.36	20.46	20.46	18.48	
共産圈	共産圈	19.79	20.26	20.36	20.46	20.56	20.41	2.28	2.25	2.25	2.25	19.79	
需給差 (億噸)	需給差 (億噸)	-2.30	-1.67	0.00	1.89	-1.36	-0.28	(年末)	(年末)	需給差 (億噸)	需給差 (億噸)	2.28	
備蓄	備蓄	40.33	38.83	38.83	40.57	39.32	39.32	40.33	40.33	備蓄	備蓄	40.33	
剩餘	剩餘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剩餘	剩餘	0.00	
季節	季節	5.00	2.50	4.00	6.00	5.00	5.00	5.00	5.00	季節	季節	5.00	
強制輸送	強制輸送	35.33	36.33	34.83	34.57	34.32	34.32	35.33	35.33	強制輸送	強制輸送	35.33	
比率	比率	(85)	(85)	(85)	(89)	(86)	(86)	(86)	(86)	比率	比率	(85)	

主要前提条件 (1) '83 GNP実質成長率 2.5%  
(2) 原油価格 30\$/Bbl(AL)  
(3) 貨物高傾向수준

主要前提条件 (1) '83 GNP実質成長率 1.9%  
(2) 原油価格 34\$/Bbl(AL) 保合  
(3) 貨物高傾向持続 (82. 3/4분기 수준)

主要前提条件 (1) '83 GNP実質成長率 1.9%  
(2) 原油価格 34\$/Bbl(AL)  
(3) 貨物高傾向수준

### OPEC 総会의 決議概要

総会	開催年月	開催地	決議内容
1	60. 9	바그다드	OPEC의設立表明, 石油会社에 대한共同의政策策定의必要性, 公示価格의回復에의努力傾注, 公示価格의變更으로產油国政府의事前協議制度入, 產油·輸出割当의必要性
2	61. 1	카라카스	카타르의加入을承認, OPEC의定款제정,
3	61. 10	태헤란	石油産業의収益性, 石油価格의現行水準과価格決定方式에관한OPEC의介入에관한研究機關의設置
4	62. 4	제네바	인도네시아, 리비아의加入을承認, 公示価格·利權料·販売経費에관한事項, 資料保存을任務로하는機關의設置
5	62. 11	리야드	既決議의修正
	63. 12	리야드	事務總長의權限
6	64. 7	제네바	各担当部의任務內容
7	64. 11	자카르타	OPEC經濟委員會의設置, 利權料의經費化
8	65. 4	제네바	OPEC經濟委員會의規約, OPEC의規約의承認
9	65. 7	트리폴리	OPEC地域의原油의生產計劃의試驗的採用
10	65. 12	빈	合法의利益을保護하는리비아의立場을全面的으로支援, 公示価格適用의意味의調査를經濟委員會에指示
11	66. 4	빈	控除의完全撤廃
12	66. 12	쿠웨이트	OPEC規約의修正
13	67. 9	로마	리비아, 이라크가価格上昇을시도한借置를全面的으로支援
14	67. 11	빈	아부다비의加入을承認, 生產計劃, OPEC의目標追求에있어서有効한手段이라는점을確認
15	68. 1	베이루트	_____
16	68. 6	빈	會員國의石油政策(開発方式, 事業參加, 地域의포기, 公示価格 또는課稅基準価格)의宣言
17	68. 11	빈	石油資源保護를위한規制案의採用과實施, 工業國의人為的石油価格引下에對한石油利權의不認可
18	69. 7	빈	알제리의加入을承認, OPEC諸國과工業國과의貿易不均衡의是正方策을研究키로
19	69. 12	도바(카타르)	알제리의行動을全面的으로支援, 資源保護規制의施行에관한리비아의立場을全面的으로支援
20	70. 6	알제리에	1971~75년의生產計劃의採択, 課稅基本価格을引上하려는알제리의立場을全面的으로支援, 利權料經費화에관한이라크의立場을全面的으로支援
21	70. 12	카라카스	最低税率55%, 公示価格의引上, 課稅控除의全廢, 共同生產計劃
22	71. 2	태헤란	카라카스決議의implementation
23	71. 7	빈	共同生產計劃을達成하기위해常任委員會를設置키로
24	71. 7	빈	나이지리아의加入을承認, 既存石油利權에對한參加에관해準備作業開始
25	71. 9	베이루트	既存石油利權에對한有効한參加目標, 國際通貨危機가OPEC諸國의石油收入·購買力에미치는影響
26	71. 12	아부다비	_____
27	72. 3	베이루트	參加實現을阻止할可能性이있는石油会社에對한制裁措置
28	72. 6	베이루트	이라크政府의IPC国有化를全面的으로支持
29	72. 6	빈	_____

30	72. 10	리 비 아	事業參加問題
31	72. 11	라 고 스	이라크의 国有化를 支持, 新事務總長(케네氏, 알제리)選出
32	73. 3	빈	에너지危機, 달러減価補償問題
33	73. 5	빈	달러減価補償問題
34	73. 6	빈	에파도르를 準會員國으로 承認, 政策声明(世界의 에너지市場의 現状 및 將來, 生產국과 消費국과의 正當하고 公平한 関係에 関한 政策)
35	73. 9	빈	아부다비의 原油公示價格에 関한例外措置를 支持, 리비아의 51%国有化措置를 支持, 工業諸國의 인플레의 檢討, 테헤란, 트리폴리, 라고스諸協定의 改訂交渉開始
36	73. 11	빈	에파도르의 正式加入, 가봉의 準會員을 承認
37	74. 1	제 네 바	아부다비의 加盟, 아랍首長國連邦에 委託, 經濟委員會에 4月 1日以後의 價格수준 檢討를 委託, 先進工業國의 인플레抑制를 要請, 公示價格과 市場價格의 1.4 : 1.0의 格差廢止, 3月까지 價格凍結
38	74. 3	빈	4 ~ 6月期公示價格의 決定(1~3月水準으로 凍結)公示價格에 관해會員國에서 再檢討의 要請이 있을 경우 特別總會를 열고, 開發途上國特別援助基金의 設立에 관한 審議日程을 決定
39	74. 4	제 네 바	開發途上國特別援助基金을 7個國에 의해 그 運營과 設立이 承認되는 時點에 設立키로
40	74. 6	카 토	7 ~ 9月期 公示價格의 決定(4~6日水準으로 凍結) 利權料 2%引上(7月1日 實施)
41	74. 9	빈	10~12月期의 決定(7~9月水準으로 동결) 政府取得分 - 利權料, 所得稅 3.5% 引上(10月 1日 實施)
42	74. 12	빈	아부다비方式(11月10日, 페르사灣岸 3個國採用)의 新原油價格體系를 採択(有効期間 50年 1月 ~ 9月末)
43	75. 2	빈	首腦會談의 議題, 달러價值의 減価問題
44	75. 6	리 브 레 빌	原油價格의 再調整, SDR결제에의 移行問題
45	75. 9	빈	標準油種아라비안·라이트原油價格을 10%引上(10月1日 ~ 1976年6月30日)
46	75. 12	빈	(武裝개밀라 襲擊事件으로 中止)
46	76. 5	발 리 島	7月1日 以後의 原油價格凍結, 마닐라宣言의 支持
48	76. 12	도 바	1977年 1月 以後의 原油價格의 引上(사우디아라비아, 아랍首長國連邦은 5%, 이란등 나머지 11個國은 1月부터 10%, 다시 7月부터 5%), OPEC特別基金의 増額(8億달러 → 16億달러)
49	77. 7	스 톡 홀 롬	OPEC原油의 相對的價值에 関한 問題를 解決하기 위해 閣僚小委員會를 開催키로
50	77. 12	카 라 카 스	1978년 1월 以後의 原油價格에 관해서는 合意에 실패, 結果的으로 現行價格의 凍結, 重質油의 油種間價格差 問題에 관해서는 特別閣僚會議에서 檢討키로
51	78.	제 네 바	달러減価問題를 檢討하기 위한 高級專門家委員會를 設置키로, 現行原油價格의 繼続
52	78. 12	아 부 다 비	1979年에 原油價格의 段階的 引上(4段階最終引上率 14.5%)
53	79. 3	제 네 바	아부다비總會에서 決定된 段階引上의 實施(4段階를 4月 1日以後 適用) 또 各國의 市場條件에 따라 프리미엄을 부과키로
54	79. 6	제 네 바	標準原油價格引上(14.546 → 18달러), 市場프리미엄의 限度(2달러), 上限價格(23.50달러)의 認定, OPEC特別基金의 増額(16億달러 → 24億달러) OPEC通信社設置 등
55	79. 12	카 라 카 스	各會員國에 의한 價格認定, OPEC特別基金增額(24億달러 → 40億달러), 同基金의 開發機構에의 改編

56	80. 5	타이프(사우디)	長期戦略委員会 報告에 관해 檢討
57	80. 6	알 지 에	基準価格上限値을 32달러/배럴, 油種間 価格差를 最大 5달러/배럴로 결정
58	80. 9	빈	基準原油価格을 30달러/배럴로 하고 다른 OPEC原油의 公式価格을 從來대로凍結
59	80. 12	발리島	基準原油를 32달러/배럴, 다른 OPEC原油価格은 36달러/배럴을 上限으로 할 基準原油의 価格에 관해 決定, 最高価格은 41달러/배럴
60	81. 5	제네바	現行原油価格의 繼続, 6月1日부터 10%協調減産, 長期戦略의 再検討
61	81. 10	제네바	基準原油34달러/배럴로 하는 価格体系를 設定
62	81. 12	아부다비	一部原油의 価格調整(中·重質油小幅引下)
63	82. 3	빈	OPEC產油 상환선을 하루 1천7백50만배럴로 책정. 4月1日부터 실시, 基準価格 배럴당 34달러 고수
65	82. 7	빈	에콰도르의 오르데카에너지상을 새議長으로 선출
66	82. 12	빈	基準油価 34달러 유지와 產油상한량을 하루 1천7백50만배럴에서 1천8백50만배럴로 늘리기로 합의 国別쿼터 배정 실패
67	83. 1	제네바	석유가격, 減産, 国別產油쿼터 조정에 실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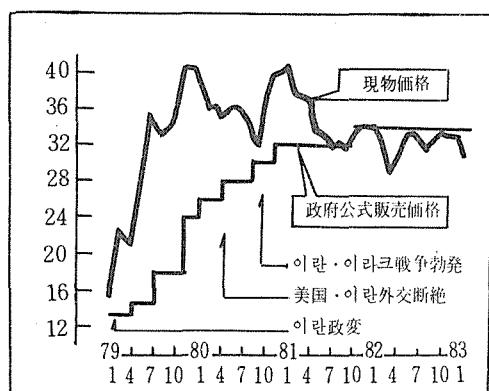
石油価格의 引下는 소비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반가운 일이다. 이는 非產油消費國들의 물가안정과 국제수지개선, 그리고 實質所得의 증가에 기여할 것이다.

그러나 國際原油価格의 급격한 하락은 세계경제에 새로운 不安定要因을 안겨다 줄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반드시 긍정적인 현상만은 아니다.

만약 國際原油価格이 인하될 경우에는 非產油消費國들은 일반적으로 물가안정과 국제 수지개선이라는 플러스效果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경제도 예외는 아니다. 그러나 國際原油価格의 급격한 하락은 결코 플러스效果만을 가져오지 않으리라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

不況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國際金融의 위기적 불안요인이加重되고 있는 최근의 세계경제에 있어서는 原油価格의 대폭인하가 초래 할 마이너스效果가 重視되고 있다. 產油국들은 石油收入의 대폭감소로 國際收支가 크게 악화될

#### OPEC基準原油(아라비안라이트)의 価格動向



전망이다. 그렇게 되면 中東產油国들의 유럽달러市場에 대한 투자가 격감될 것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資金貸出者에서 借入者로의 立場反転도 예상할 수 있는 일이다.

石油收入을 전제로 과다한 外債를 도입한 나라나 무리한 開発計劃을 추진하고 있는 나라들은 멕시코와 같은 外換危機를 초래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이는 國제금융의 危機症狀을 악화시키면서 非產油開途國의 起債를 더욱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國際金融의 不安加重은 產油国들의 건설수요 및 工產品수요감소와 더불어 세계경제

#### 世界原油価格展望 (81년가격기준 \$/Bbl)

	1985	1990	2000
Chaset	28. 67	36. 49	NA
Wharton	32. 66	37. 64	NA
DRI	32. 70	40. 51	54. 49
EIA	36. 04	53. 52	81. 91

□ 産油国動向 □

의 회복을 지연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은 거의 틀림없는 일이다. 産油國의 外換事情惡化로 우리나라를 이미 그 피해를 보고 있는 나라가 운데 하나이다. 우리나라의 対中東輸出增加率이 지난 81년 이후 계속 鈍化되고 있으며, 中東과 아프리카의 産油國에 나가 있는 우리 建設業체들이 타격을 받고 있다. 앞으로 原油価가 대폭 인하된다면 그 피해는 加重될 것이다.

또한 油価의 대폭인하는 油価上昇을 전제로 한

代替에너지開発을 늦추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며 이는 장기적으로 또 한차례 있을지도 모를 油価上昇의 伏兵이 될 수도 있다. 지금의 原油供給過剩은 石油多消費產業을 중심으로 한 世界不況에 기인하는 것이므로 일단 世界景氣가 회복되면 石油의 공급부족가능성도 예상할 수 있는 것이다. 더우기 有限한 資源인 石油는 결코 무한한 공급과잉일 수 없는 財貨임을 간파할 수 없다.(金乾治·大韓石油協会 弘報室長)

## □ 産油国動向 □

# OPEC赤字 500億달러

本の 中東經濟研究所는 지난 2월 14일, 原油価引下에 따른 OPEC의 經常收支전망을 발표하였다. 그것에 의하면 原油価格이 내리지 않아도 1월의 생산량(하루 1,708만 배럴)이 계속되면 OPEC의 13개 회원국의 83년도 經常收支는 3백억달러의 赤字가 불가피하고 배럴당 4달러의 価格引下가 결정되면 5백억달러로 확대된다고 밝혔다.

지난 60년에 OPEC가 결성된 직후를 제외하고 이렇게 거액의 경상수지적자를 내기는 처음이다.

이 연구소에 따르면 OPEC의 經常收支는 79년 5백45억달러의 흑자에서 80년에는 제2차 오일쇼크에 따른 価格上昇으로 1천12억달러로 불어나 OPEC는 사상 최고의 흑자를 내면서 파워를 과시했다. 그러나 原油価格上昇에 따른 세계동시불황의 진행이 계속되고 소비국의 에너지절약, 대체연료로의 전환등으로 인해 石油需要가 감퇴, 81년에는 5백 6억달러로 흑자폭은 반감됐다.

또 82년은 OPEC의 연간 평균 原油生産量이 하루 1천 8백56만배럴로 떨어지면서 50억~100억달러의 적자로 돌아섰다.

금년 들어 OPEC原油에 대한 수요는 더욱 줄어들어 1월에는 1천 7백만 배럴로 떨어졌고 이 수준이 금년내내 계속되면 83년은 3백억달러의 적자가 예상되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油価가 1달러만 떨어지면 OPEC 전체로 石油収入은 연간 50억달러가 감소하고 4달러가引下되면 2백억달러가 감소한다. 더우기 일자에서 나돌고 있는 10달러의 価格引下가 실현되는 경우에는 적자액이 8백억달러나 된다.

다만 8백억달러의 경상적자가 나오기 전에 OPEC는 방위조치를 강구하므로 10달러라는 큰 폭의 가격인하 가능성은 적다고 보고 있다.

OPEC의 經常收支 展望에 대해서는 OPEC사무국이 작년 8월, 82년은 95억달러의 적자, 83년은 62억달러로 보고 있고 日本의 第一勸業銀行도 최근 83년은 4달러 인하를 전제로 2백26억달러의 적자를 나타낼 것으로 보고 있다.